

독거노인 20여명이 가꾸는 담양 수북면 '행복씨앗농장'

손자들과 단칸방에서 살고 있는 김모(77·광주시 남구 양림동)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정신편이 비뚤다. 평소 같으면 중학교 3학년·초등학교 5학년 인 손자들을 학교에 보내고 느긋하게 경로당에 나가면 되지만, 이날만은 서둘러 실거지와 집안청소를 마친 뒤 땀은 모자에 '뽀뽀' 바지를 챙겨 입고 나선다.
지난달 31일 오전 김 할머니가 달려간 곳은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 '행복씨앗농장'.



광주 '양지종합사회복지관' 독거노인들이 지난날 31일 담양면 수북에 있는 '행복씨앗 농장'에서 열무를 뽑고 있다. /담양=니평기자 mjna@kwangju.co.kr

“외로움 묻고 행복을 재배합니다”

광주 '양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선영신)이 홀로 사는 노인들이 소외 거리라도 하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게 하려고 지난 2005년 3월 한 독거가에게서 무상 임대한 농장이다. 제법 넓은 밭 496㎡(150여 평)엔 열무·상추·고추·가지·숙갓·더덕·토란·감자·호박이 저마다 크고 작은 잎사귀를 시냇물처럼 채우고 있다.
“아이고 지난주에는 우리 손주 손바닥만 하던 것이 벌써 이렇게 자랐네”
노인들은 이날 양밭을 걷어붙이고 열무를 뽑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밭에 뿌린 씨앗이 금세 자라 열무김치를 담라도 될 만큼 자란 것이다.
“그래도 그것들이 말짱 한 번 피우지 않고 착하게 자라준 것만 해도 고마워.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이

김장 담아 다른 독거노인에 선물 “함께 일해 기쁘고 나누니 뿌듯해”

것이라도 잘 키워서 손주들에게 먹고 싶어.”
아들 부부가 이혼한 후 5년째 홀로 손자들을 키우고 있는 김 할머니의 유일한 바람은 손자들이 잘 먹이는 것. 일을 하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지만, 농장에서 뜰어오는 푸성귀가 밥상을 넉넉하게 한다.
이마에 송글 송글 땀방울이 맺힌 할머니는 “새로 반찬을 만들어 준 날은 손자들이 밥을 한 그릇 이상 먹는다”면서 “내 손으로 키운 채소로 손자들 반찬 해주는 게 행복”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병대(76·광주시 남구 봉선동) 할아버지는 지난 2005년부터 꾸준한 농장일을 하고 있다. ‘작업반장’이라는 별명도 그래서 붙었다. 그에겐 “이봐 반장, 열무 다음엔 뭘 심을까?” “물을 줘야 할 것 같은데...” 라는 등 농장일에 관한 질문들이 쏟아진다.
할아버지는 “농장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의지가 많이 되고 있다”면서 “하루하루 키가는 채소들을 보면서 다들 뿌듯해 한다”고 귀뚱했다.

“행복씨앗 농장” 일을 하는 노인들은 감자와 단풍이 살거나 자식들과 떨어져 홀로 사는 할아버지·할머니 등 20여 명. 외로운 그들에게 농장은 행복과 희망을 심어주는 ‘새싹’이 된 것이다. 복지관 측은 이들 노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11인승 카니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농장에서 수확한 배추 400포기로 김장을 담아 70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복지관 한신애 지역사회 팀장은 “어르신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농장을 마련했다”며 “행복씨앗’이 민들레 홀씨처럼 곳곳에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문기자 emlee@kwangju.co.kr

‘병역특례 비리’ 광주도 수사

가수 ‘사이’ 4일 소환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오는 4일 가수 사이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가수 사이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며 “사이 측에서도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소환에 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사이가 특례자로 근무했던 회사와 사이는 아버지 박모씨가 운영하던 회사인 금품거래 정황을 잡고 지난달 30일 이들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부실복무 및 금품비리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 왔다.
검찰은 또 병무청의 의뢰를 받아 광주와 경기 성남에 각각 위치한 병역특례업체 2곳에 대해 통신사실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벌이는 등 병역특례 비리사실이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달 31일 병역특례업체 P사 대표 김모(37)씨를 구속키 소환하면서 P사에서 근무한 가수 K씨 등 4명을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함에 따라 이날까지 편입취소 통보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황을 잡고 지난달 30일 이들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부실복무 및 금품비리 의혹에 초점을 맞춰 수사해 왔다.
검찰은 또 병무청의 의뢰를 받아 광주와 경기 성남에 각각 위치한 병역특례업체 2곳에 대해 통신사실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벌이는 등 병역특례 비리사실이 있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검찰이 지난달 31일 병역특례업체 P사 대표 김모(37)씨를 구속키 소환하면서 P사에서 근무한 가수 K씨 등 4명을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함에 따라 이날까지 편입취소 통보자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니원침 (7225) 김장두



산악인 엄홍길씨 ‘3전 4기’

순천 출신 변성호씨와 로체샤르 등정 성공 세계 최고 히말라야 8,000m급 16개봉 올라

엄홍길(47·트렉스타)씨와 순천 출신 산악인 변성호(37·순천제일대산악회O.B)씨가 히말라야 로체샤르(8,400m)봉 등정에 성공했다.
이로써 엄씨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6개봉을 모두 오르는 쾌거를 이뤄 세계 등반사를 새로 썼다.
엄홍길 대장이 이끄는 ‘2007 한국 로체샤르·로체남북 원정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이하 현지 시각) 오후 6시50분께 엄 대장과 변성호, 모상현(34) 대원이 로체샤르 정상에 올랐다.
엄 대장은 이날 새벽 3시 캠프4(8,100m)를 출발해 15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등정에 성공했다. 이어 앞서 대원들은 3,000m가 넘는 수직 절벽 구간을 프러트포인팅(아이젠을 부착한 이증화 앞부



〈엄홍길씨〉 〈변성호씨〉

분을 빙벽에 차넣으면서 오르는 방식)으로 나흘간 올랐다.
엄씨는 2001년 로체샤르에 도전했다가 기상악화로 7,600m지점에서 포기했고, 2003년에는 8,250m에서 눈사태를 당해 대원 2명을 잃는 등 7년동안 4차례 도전 끝에 결실을 맺었다.
또한 변씨는 가셔브롬 I(8,068m)과 초오유(8,201m)에 이어 8,000m급 3개봉 등정에 성공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onstruction Chemicals) products. It lists various construction materials like DS construction, KCC cement, and KCC concrete,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regional offices in Busan and Gwangju.

국가보조금 부정 지급

나주시청 간부 둘 구속

국고 보조금 지원자격이 없는 업자에 대해 가역의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나주시청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1일 나주시청 자치행정국장 유모씨(58)와 친환경작물과장 한모씨(55)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안모씨(50) 등 나주시청 공무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2004년 5월부터 N화훼농조합 대표 서모(46·2006년 구속)씨가 화훼단지 조성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계산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비 3억원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12억3천1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광일기자 cki@

어민 면세유 카드 도용

수협 직원이 기름 빼내

여수해양경찰은 1일 지역 어민의 면세유 카드 번호를 도용해 면세유 2천ℓ를 빼돌린 고충 수협 직원 선모(4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선씨는 지난 2005년 4월경부터 어민 이모(45·고흥군 풍양면)씨의 면세유 카드 번호를 훔치고 지시서를 부정 발급받은 뒤 같은해 11월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300여만원 상당의 면세유 2천ℓ를 공급받아 자신의 차량에 사용한 혐의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미술품 사은품 결제 대금 소송 제기

“인기 미술사 이은결씨가 전 소속사 ㈜비즈매직을 상대로 약정금 1억6천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소장에서 “전 소속사와 일반 이벤트 행사 및 방송출연료, 모델수입 등에 따른 수입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음에도 2004년 활동에 따른 수입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비즈매직은 당초 미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필요한 의상이나 연습실을 지원하지 않아 상당부분 개인적으로 조달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매니페스토 이행 설명회

1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최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매니페스토 이행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설명회’가 광주시 동구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니평기자 mjna@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Yun Sang-won' (윤상원) featuring a book titled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The text describes the author's journey and the book's focus on life philosophy and social issue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Sallesio, and mentions a book signing event.

강진의료원, 모기약을 감기약으로 잘못 전달

생후 19개월 유아 한때 중태

강진의료원이 생후 19개월 된 유아에게 모기 물린 데 바르는 약을 감기약으로 잘못 전달해 아이가 한때 중태에 빠졌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강진의료원은 이 과정에서 아이에게 처방적일 수 있는 위세척을 권유했는가 하면 뒤늦게 약병에 ‘연고’라고 표기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일 강진의료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1시30분께 감기로 입원 중

이던 윤모(2·강진군 칠량면)군의 부모가 병원에서 감기약이라며 준 ‘카라민로션’(Calamine Lotion)을 아이에게 먹였다.

그러나 카라민로션은 모기나 벌레에 물렸을 때 바르는 액체 형태의 피부치료제로, 산성 성분인 페놀·산화아연이 각각 80mg가량 포함돼 있어 이를 먹을 경우 위·십이지장 등이 손상되고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윤군은 이후 40여분 뒤 호흡곤란과 얼굴색이 파랗게 변하는 증세를 보여

부모에 의해 목포한사랑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으며, 아직까지 별다른 후유증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사고는 담당의사가 ‘아들이 모기에 물렸다’며 바르는 모기약도 달라는 윤군 부모의 요구에 따라 모기약을 처방했거나, 간호사가 이를 먹을 경우 위·십이지장 등이 손상되고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윤군의 부모는 “당시 아이가 약을 먹으려 하지 않고 감기약이 추가된 점 등이 의심스러워 이를 확인했으나 간호사가 ‘감기약이 새로 처방됐다’며 약을 먹이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군의 부모는 아이의 코를 막고 강제투여 카라민로션 3cc를 먹였고, 병원 측은 10분 뒤 ‘모기약을 달라’는 부모의 재촉에 약이 잘못 전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병원 측은 특히 일반적으로 산성 성분을 위세척하면 약물이 퍼지면서 자칫 위나 십이지장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데도 부모에게 위세척을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군 아버지는 “병원측에서 위세척을 하자고 해서 어이가 없어 병원에선 약을 먹여 치료받고 있는 사이 약병에 뒤늦게 ‘연고’라는 글자를 써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군 아버지는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한 사고를 입증하기 위해 다시 병원에 와보니 누군가 약병에 ‘연고’라는 글자를 써놓았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이에 대해 “간호사가 실수로 약을 혼동해 전달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Weather forecast for June 2nd (Thursday, June 17th). It includes a table of temperatures for various locations (e.g., Gwangju, Seoul, Busan) and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 It also provides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Gwangju.